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눅 17:5-6)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능력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째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더 부요해 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드려서 그분이 더 똑똑해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믿으며,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3.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과 담대함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능력은 있으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견고해 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ncrease Our Faith

(Luke 17:5-6)

If we have faith, we can live a victorious life with miracles. We should ask three questions regarding faith and get clear answers. If you do this, you can keep your faith and you can have a healthy life.

1. What do we believ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elief in the Bible means that we believe God. In regard to God in the Bible, first, we believe his almighty God, the Father, secondly, we believe that God in the Bible is God of eternal love. It is not impossible for God to have too laborious task. T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God. Our God never makes a mistake, and he is complete, and sincere.

2. Why is God joyful for our faith?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 11:6).

Only our faith towards him can make us please God. It is God who doesn't lack anything. By making our biggest offerings, he is not rich. By receiving wisdom we become smarter.

Our God is complete and sound from eternity to eternity, and rich in good things. By believing God, it is only for us to believe him, recognize him, rely on him and please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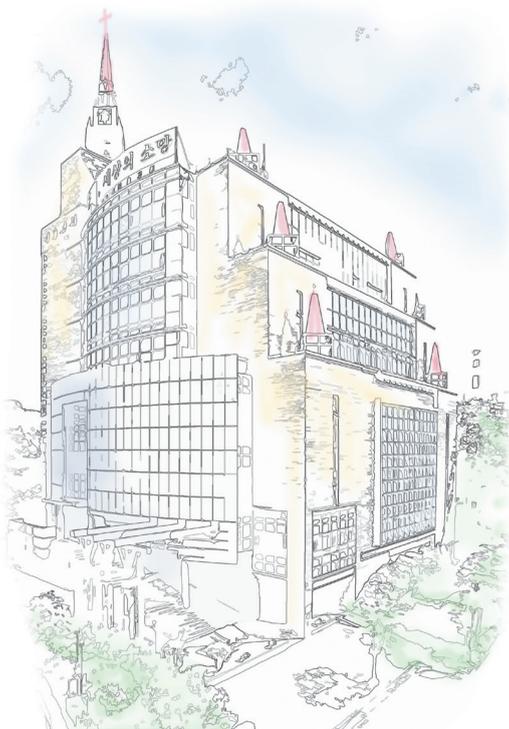
3. What is faith's wonderful power?

The traits of those who have faith enjoy peace, magnanimity, and rest. Though I believe in Almighty God, if God does not love me, fears and anxieties descend on me. Even though God is powerful, it is because I feel that he does not help me. Though we believe his eternal love, it is because he loves us but sometimes we feel that problems are out of his power.

Therefore, at the time of finishing Jesus' public life, Christ's twelve disciples asked, “Increase our faith, which is more precious than gold, and which is like our life.”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saints in the Bible who truly believe God is peace and magnanimity.

My beloved Christians,

“Do not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6-7).



10월 16일자 순례자 휴간에 관한 경과 보고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

0611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5, 601호 (역삼동 선릉빌딩)
☎ 02)569-2077 FAX: 02)569-2078 Homepage: sknp.or.kr E-mail: sknp@chol.com

서강남 : 제 58-197호
시행일자 : 2016. 9. 21.
수신 : 서울교회 당회장
목적 :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서울교회에서 본 서울강남노회에 2016.7.18.일로 접수한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서울교회 정관 제 15조(개정 및 효력 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며 서울교회 정관이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과연 총회 헌법에 비추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한 답변은 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집행은 제직회가 하는 것이며, 당회는 지도자적 기관이나 최고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보통 당회는 개정 수정안을 다루고, 교회의 최고 의결인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중사대한 문제로 정관의 적용대상인 공동의회 회원들이 인정한 바 없는 정관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의하면 서울교회 규정 제2조(기간) 제 3조(신임투표와 재 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 찬성에 의한 신임 투표를 거쳐 재 시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에는 "헌법 권장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총회 헌법에 명시된 규정과 의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나 그들에게 허락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는 바 안식년제 규정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교단 헌법과 서울교회 정관 및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상충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총회 헌법 해석 사례집 제94회기 헌법 해석 사례집 30항에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택) 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 정관은 우리 교단 헌법과 위배되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노 회 장 이 태 종
서 기 오 경 환

2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수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참조 : 헌법위원장
경유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장

3 수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참조 : 헌법위원장
경유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장

1. 서울교회 정관의 제정과정 등

서울교회 정관 제 15조(개정 및 효력 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중거1)에 의하면 1992. 2. 1 (토) 제정된 것으로 확인됨

당회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교회 정관이 총회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2.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 등

위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 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마친 다음, 당회 3분의 2 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한다 라고 하는 데,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중거2)은 제정근거인 정관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동규정은 총회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3. 교단헌법과 서울교회 정관 및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의 상충문제

예장통합 교단헌법 제2편(정치) 제4장 제22조는 목사의 시무인한을 70세로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1편(정치)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 권장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상충되는 서울교회 정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 발생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 1. 중거1,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집, 제9장 부칙
2. 중거2,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제2조(기간,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

2016. 7.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노철

중거1,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집, 제9장 부칙

제15조 (개정 및 효력 발생)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용한다.

-계 정 : 1992. 2. 1(토)
-제1차 개정 : 2001. 9. 26

1 박노철 목사는 지난 10월 8일(토)에 서울 강남노회 답변서를 순례자에 기사화하라는 요청있어 10월 9일(주)에 무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인지 알고 자 질의서를 부속실에 요청하였다.

2 그러나 10월 14일(금) 순례자 편집이 끝난 오후 10시까지 질의서가 도착하지 않았고 10월 15일(토) 수정편집이 완료된 직후 질의서를 받고 순례자를 다시 수정편집 후 문서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쇄 도중 중단까지 하게 되었다.

3 문서의 오류 : 박노철 목사가 질의한 질의에 대한 수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앞이며 경유로 서울 강남노회장일 뿐이다. 박노철 목사가 질의한 질의서의 답변 자격이 서울강남노회장에게는 전혀 없음.

4 노회에서 회신된 공문이 수신이 당회장 앞이라면 먼저 당회에 보고하여 논의된 후 그 논의 결과를 순례자가 실어야 하는데 이 답변서는 당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노회에 보낸 질의서는 담임 목사 개인이 보낸 것이다.

5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남노회

0611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5, 601호 (역삼동 선릉빌딩)
☎ 02)569-2077 FAX: 02)569-2078 Homepage: sknp.or.kr E-mail: sknp@chol.com

서강남 : 제 58 - 225호
시행일자 : 2016. 10. 17.
수신 : 서울교회 당회장
제 목 :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제2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서울교회에서 본 서울강남노회에 2016년 7월 18일 접수한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두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2. 서울교회가 발송한 질의서에 대하여 본 노회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문서번호 서강남 제 58-197 호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즉, 귀 교회에서 보낸 질의서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수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질의서의 수신처를 본 노회로 오인하여 답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이에 본 노회에서는 귀 교회가 접수한 질의서를 총회로 이첩하였으며 아울러 본 노회가 발송하는 답변요청서를 총회로 보냈습니다. 총회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귀 교회에 다시 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

결 제 지
일 자 2016. 10. 18(화) 시
시 간 09:55 공
번 호 326 람
처 리 과 장 회 당
당 자 람

노 회 장 이 태 종
서 기 오 경 환

10월 18일(화) 서울 강남노회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공문을 또 다시 보내왔다.

1. 서울교회에서 본 서울강남노회에 2016년 7월 18일 접수한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두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2. 서울교회가 발송한 질의서에 대하여 본 노회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문서번호 서강남 제 58-197 호 이미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즉, 귀 교회에서 보낸 질의서는 서울강남노회를 경유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수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질의서의 수신처를 본 노회로 오인하여 답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이에 본 노회에서는 귀 교회가 접수한 질의서를 총회로 이첩하였으며 아울러 본 노회가 발송하는 답변요청서를 총회로 보냈습니다. 총회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귀 교회에 다시 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

교회정관 및 규정에 대한 바른 이해

박노철 목사는 교회정관 및 규정에 대해 질의한 강남노회의 답변서를 10월 16일(주) 순례자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회는 노회에 교회정관 및 규정에 관한 질의를 논의한 사실조차 없고, 더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헌법위원회)에 있으므로 헌법해석 권한이 전혀 없는 노회임원회의 해석은 답변서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장 총회 제 85조 4항 근거)

또한 노회에서 회신 된 공문이라면 먼저 당회에 보고하여 논의된 후 그 논의 결과를 순례자가 실어야 하는데 이 답변서는 당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노회에 보낸 질의서는 담임목사 개인이 보낸 것으로 이 사실 또한 당회는 아는바가 없다고 한다.

순례자는 이미 지난 8월 28일자, 1284호에서 목사, 장로 안식년제도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헌법 제2편 제1장 제2조의 '교회의 자유' 원리에 의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입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항목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입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

2) 헌법 제2편 정치 1장 원리 1조에 의하면 각인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서울교회 당회는 성경교훈에 위반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양심의 자유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제도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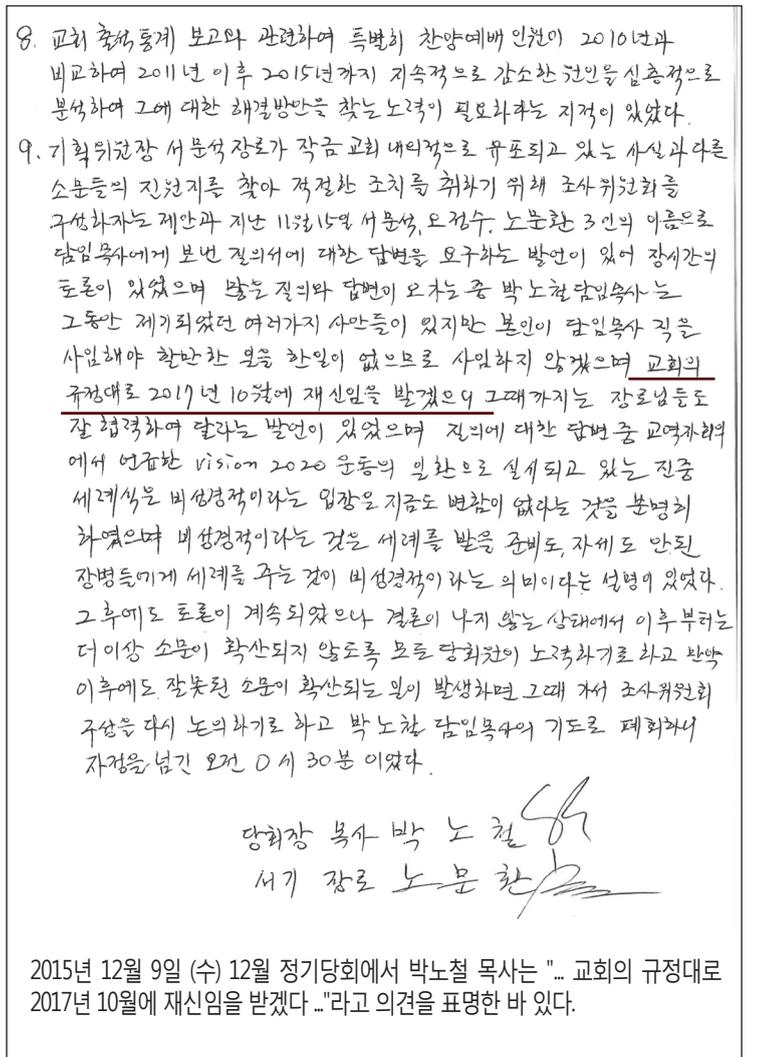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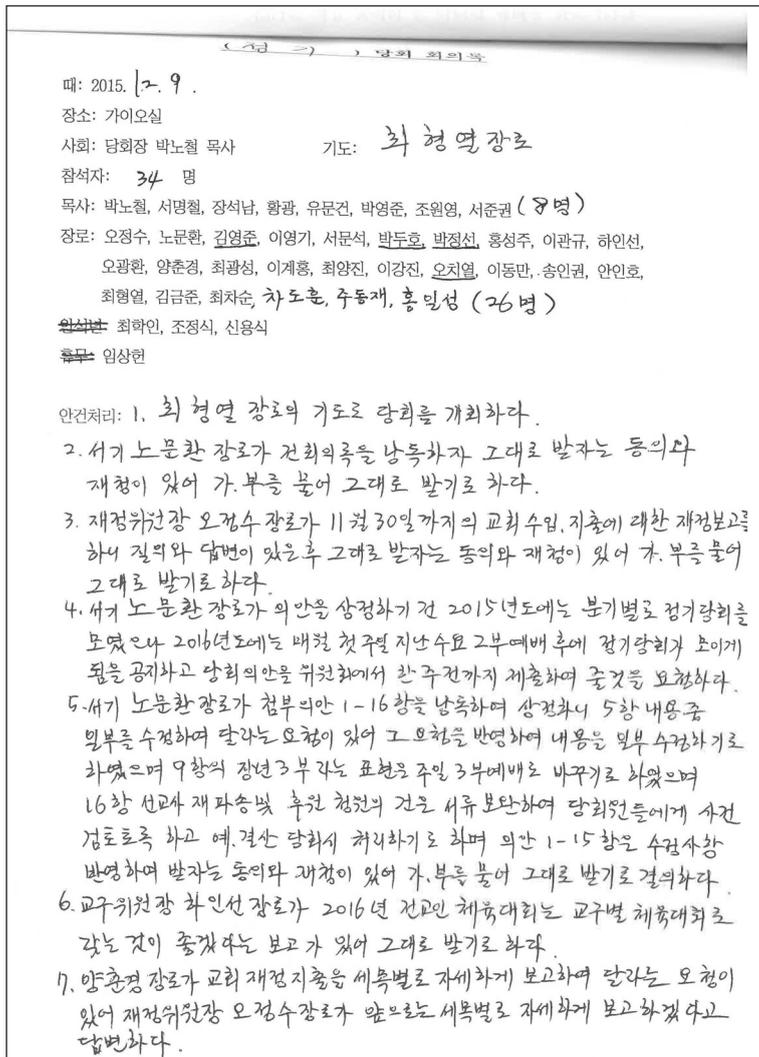
3)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를 도입, 목사 6년 그리고 장로 4년 시무 후 1년을 안식년을 갖기로 하였다. 2007년 교회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을 '4년 시무 후'에서 '6년 시무 후'로 바꿨다. 대신 경과조치로 2003년 장립된 8대 장로들은 4년 시무 후 안식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교회는 법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므로 자체적으로 규정한 정관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며 교회에서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스스로 만든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마다 지교회의 정관과 규정을 문제 삼아 분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서울교회의 정관과 규정은 전혀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1998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제도로 올해도 하인선 장로 한 명이 안식 중이다. 교회 정관 중에 특히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문제시 하는 목사 안식년제는 담임 목사가 부임할 당시 이미 본인이 인지한 조항이므로 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2015년 12월 9일 (수) 12월 정기당회에서 박노철 목사는 "...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안식년을 앞두고 이 정관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었다며 정관과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교회 정관과 규정에 관한 논란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성도들은 바른 이해 바란다.

편집부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입상자

2016년도 성경암송대회가 10월 16일(금) 저녁 7시에 열렸다. 올해 암송대회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요한일서 4장이었으며 세 장 중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송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1국(개인)

대상 : 서예준(유치), 노진철(유년), 김승수(초등)
 믿음상 : 이윤하·이은하(유아), 한예승(유치), 심설아(초등)
 소망상 : 장유선(초등)

- 교육 1국(단체)

소망상 : 유년1팀 - 노윤, 송하영, 장유정, 최시원, 한예준

사랑상 : 유년2팀 - 김은송, 심주하, 이주엽
 초등1팀 - 박주원, 송하은, 장해운, 정은지

- 교육 2-4국(개인)

대상 : 김진달
 믿음상 : 장정화, 김미성1
 소망상 : 황선영
 사랑상 : 박유진, 직분자양성부(강윤숙, 고윤상, 김미성, 김용환, 최예순)
 장려상 : 진하민, 장상국, 고등부 2-4반(권소희, 공신혁, 문예림, 송윤희, 신서호, 최유리)

- 영어암송

대상 : 장하늘(중등)
 믿음상 : 김동혁(초등)
 소망상 : 이서주(중등)

22사단 진중세례식

10월 29일(토) 오전 6시 30분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10월 29일(토)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진중세례식을 실시한다. 비전2020운동을 통해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10월 세례식 거행

세례자 : 김영기 한유리 육세연 심동교 김지아
 이경희 윤선희 계 7명
 입교자 : 김지환 차채린 채승호 계 3명
 개종자 : 정정철 이주연 계 2명
 유아세례자 : 심보석 이재운 박서준 최수안 박주한
 계 5명
 총 17명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5일(화)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회를 소집한다. 28일(수) 한국장로신문사에서 종교개혁499주년 특별좌담회를 갖는다.

- 주일식당봉사 : 이삭 선교회 (10.23) 모세 선교회 (10.30)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신천지 등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지 조사 실시

작성자 필히 실명기입 - 기록한 내용은 비밀 보장

2016년 9월 7일 정기당회에서 신천지 등 이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사하기로 결의한 설문지가 오늘 주보에 간지로 들어가 있다. 성도들은 상세히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본당 2층과 3층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기 바란다. 기록한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신천지 OUT' 마크를 성도들이 패용하는 것이 8월 7일 임시당회에 보고되었으므로 이단의 침투를 막기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사무국에서 마크를 받아 달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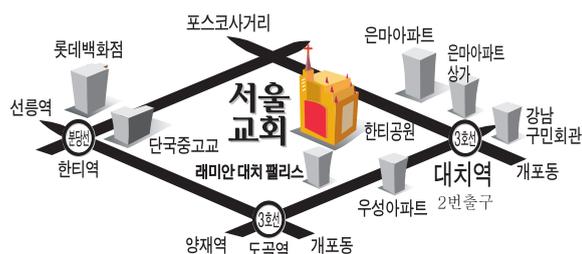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개종, 입교, 세례 받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10월 29일(토) 22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I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